

# 전남교육청, '2025 발명교육대상' 2개 부문 수상 영예

## 공로상에 삼향북초 김관규 교감, 교사상에 여수중앙초 김연태 선정

전라남도교육청은 '2025 대한민국발명교육대상'에 삼향북초등학교 김관규 교감이 공로상을, 여수중앙초등학교 김연태 교사가 교사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대한민국발명교육대상은 교육계에서 '발명 교사들의 노벨상'으로 불릴 만큼 권위 있는 상으로, 분야별 1명씩 2명만을 시상한다. 특히 올해처럼 모든 수상자가 전남에서 배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김관규 교감은 2017년 교사상에 이어 올해 공로상까지 수상하며, 두 부문을 모두 받은 전국 최초의 교육자가 됐다. 또한 대한민국발명교육대상, 전국우수발명교육센터지도자상, 발명교육 명인 인증 등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수여하는 상과 자격을 모두 가진 유일한 교육자이기도 하다.

김 교감은 현재 전남발명교육연구회 부회장으로, 12년 넘게 지역 발명교육 격차 해소에 앞장서 왔으며,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는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11년간 149회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지자체와 교육청

이 협력한 지역 창의력 생태계 구축, 특히 기반 교육 확대 등 발명교육의 구조를 혁신한 공로가 인정됐다.

교사상 수상자인 김연태 교사는 발명교육 1급 인증 교사로서 "발명은 미래이고, 교육은 책임"이라는 철학 아래 여수 지역 발명교육을 재편하는 데 기여했다. 코로나 시기에도 모든 신청 학교를 찾아가는 발명수업을 운영하며 지역 발명교육의 흐름을 끊기지 않도록 했고, 2024년에는 여수 최초로 중등 발명영재 정규반을 개설해 지속 가능하고 단계적 발명교육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IP교육·메이커·환경·예술을 융합한 지역 특색화 프로그램, 특수학교·도시벽지 등 교육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발명 한마당 운영, 노후한 발명교육센터 시설 개선 추진 등 책임 있는 교육의 확장을 실천한 노력이 크게 평가받았다.

김관규 교감은 "전라남도교육청의 지속적인 지원 덕분에 지역 발명교육이 더욱 성장할 수 있었다"며 감사사를 전했다. 김연태 교사 역시 "미래를 책임지는 발명교육을 더 깊고 넓게 펼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관규교감



김연태교사

김영길 글로벌미래교육과장은 "전남에서 공로상과 교사상을 동시에 수상한 것은 우리 교육의 방향성과 현장의 현신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며 "김관규 교감과 김연태 교사의 열정은 전남 발명교육 수준을 전국 최상위로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염선호 기자



## 고흥군, 취약계층 사랑의 땀감 무상 전달

###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과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겨울철을 맞아 산림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산림부산물을 관내 취약계층에 난방용 땀감으로 지원하는 '사랑의 땀감 나누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난방용 땀감은 고흥군이 매년 시행하는 숲 가꾸기사업과 임도 정비 등 산림사업에서 발생한 인삼물 등 땀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를 접합장으로 모아 군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난방용 땀감으로 제조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나눔 행사다.

지원 대상은 읍면에서 추천받은 취약계층 명단을 바탕으로 선정했으며, 12월 8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저소득 취약계층 56세대에 1톤씩 총 56톤을 가정까지 무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군 산림정원과 관계자는 "매년 사랑의 땀감 나누기 행사를 실시해 산림부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산물 등 산림 재해를 예방하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연료비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회 나눔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 이도영 광주노동청장, 초등학교 급식시설 방문

### 학교급식시설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파악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도영)은 지난 5일 광주 서구 소재 초등학교 급식시설을 방문하여 환기시설 운영 실태와 국소 배기장치 안전검사 실시 여부, 조리 종사자의 안전보호구 착용 및 안전시설 확보 등 노동환경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은 학교 급식시설에서 근무하는 조리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주시교육청, 광주지역 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전남직업병안심센터,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대한산업보건협회 광주본부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실시하였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급식실 내 환기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급식실 출입구 경사에 따른 배식 시 문제점, 음식물 배출과정에서의 계단 이용 및 조리실과 식당내 높낮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배식대 인월 부족, 학교내 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지정, 조리시 발생하는 열·증기·분진

등 유해요인 관리 실태, 조리도구 및 위생 설비의 안전성, 작업공정에서의 유해·위험 요인, 근골격계 발생 가능성, 화상·미끄러짐 사고 예방 대책 등 조리시설 내부에 산적해 있는 근무환경 전반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였다.

또한, 조리종사자 추가 인원 확보, 장기 근무자의 순환 근무, 신규 종사자 다수 정보, 노후시설로 따른 시설 개선과 안전사고 발생 우려, 안전·보건교육 실시, 시정확보를 위한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에 대해 학교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이에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게 되었다며, 신규 직원 발령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학교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등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 교육청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한편, 교육청 관계자 분께도 보고하겠다고 하였다.

이어, 이도영 청장은 "광주지역 학교 전



반에 대한 애로사항 및 개선대책 마련 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지역 관련 협·단체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가칭) 「학교급식시설안전·보건관리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급식시설은 다수의 근로자가 밀집해 일하는 공간으로, 환기·위생·작업환경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산업재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해 안전

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조리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점검을 통해 이도영 청장은 "광주시교육청·광주광역시 및 협·단체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학교 급식시설 전반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높이고, 조리 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나 장치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준행 기자

##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후원금 기탁식 개최

### 민들레 씨앗처럼, 당신의 기부는 희망을 널리 퍼뜨립니다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이사장 정광용)은 12월 5일 광양시장, 재단 이사장, 기탁 기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금 기탁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기탁된 후원금은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의 300만 원이다.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자 기탁하게 됐다. 어린이보육재단이 펼치는 따뜻한 보육사업이 더 많은 가정에 희망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나눔과 상생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전인주 경영지원처장은 "이번 기탁은

직원 모두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겠다는 마음을 담아 준비한 나눔"이라며 "재단의 다양한 사업이 아이들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에 의미 있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 주신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지역과 함께하는 공공기관의 진정성 있는 참여는 광양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고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여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 건강보험 임신·출산 관련 제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난임 시술  
(보조생식술)  
급여제도**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 보성군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동아리지원사업' 행복한 마침표

현대자동차그룹의 후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한국자폐인협회 주관한 공모에서 선정된 '발달장애인동아리지원사업'이 보성군장애인복지관에서 지난 12회기 동안 행복한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소통과 성장의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한 참여 가족은 "처음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매주 참여하면서 다른 분들과 어울리고, 미처 몰랐던 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했다. 다음 활동이 벌써 기대될 만큼 자신감도 얻었다"라며 밝은 소감을 전했다.

참여자들은 오리엔테이션에서 친밀감을 쌓았고, 미술, 공예, 여가 활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특히, 개성 넘치는 작품을 만들고 심리 그림 검사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마지막 회기에는 활동 사



진으로 앨범을 직접 꾸미며 행복했던 순간들을 간직했다.

보성군장애인복지관 김승진 관장은 "이번 '발달장애인동아리지원사업'을 통해 참여 가족들이 보여준 놀라운 변화와 따뜻한 유대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단순한 활동을 넘어, 모두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공동체를 형성했다. 앞으로도 발달장애인들이 더 큰 꿈을 꾸고 세상과 당당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지속적

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달장애인동아리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서로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세상과 소통하는 용기를 얻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 보성군장애인복지관은 이 뜻깊은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다. 보성/김운기 기자



## 강진군, 제46호 사랑의 집 짓기 입주식 열려

### 민관이 함께 지은 새 보금자리... 저소득 가정 주거안정 지원

강진군이 지난 8일 저소득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제46호 사랑의 집

짓기' 입주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강진군,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진로타

리클럽이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한 민관협력 주거복지 사업이다.

입주식에는 강진원 군수, 서순선 강진군의회 의장,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동국 사무처장, 강진로타리클럽 이경섭 회장 및 회원들, 마을 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해 따뜻한 축하를 전했다.

입주 가정은 2021년부터 용정마을 주택에 무상 거주해왔으나, 주택 노화로 나무가 썩고 비가 새며, 난방과 온수 이용이 어려워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사업은 총 8천만 원 규모로, 강진군 2천만 원, 강진로타리클럽이 1천만 원, 지역 연계 모금 1천만 원,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4천만 원을 각각 지원해 신전면 18평 규모의 단독주택을 신축했다. 강진/손경설 기자